

## 벼랑끝 ‘소아응급’... “열 떨떨 끓는데 의료진은 태부족”

“저와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아기는 열이 38도 넘어서 응급실 알아보는데 바늘 아물 곳도 없고 갈만한 곳은 딱 찔라네요.”(생후 2개월 아기 엄마)  
 “소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다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대형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 소아 확진자 급증에 소아응급 체계 붕괴 ‘위기’

### 소아진료 특성상 다른 과 지원 받기도 어려워

거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소아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버티는 소아응급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3월6일~12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50만824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5.5%를 차지했다.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이 소아·청소년인 셈이다. 9세 이하 확진자도 하루 3~4만 명으로 전체의 10% 가량에 달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 처한 소아 확진자들이 제때 진료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 자

녀를 둔 부모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A씨는 “40도 이상 고열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아 치료가 간절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서울 지역 맘카페 회원인 B씨는 “아기가 진료받을 병원을 알아보다 지쳐버렸다”면서 “집에서 열이 내릴 때까지 해열제 먹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소아 응급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의료진 대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소아응급의학과 A전문의는 “원래 소아 응급 전담 의사

와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사흘 전 하루동안 진료한 아기들의 경우 모두 확진 판정이 나올 정도로 소아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다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다.  
 소아 응급 전담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지만 다른 과 의료진의 지원도 받기 어렵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쉽지 않고 소송 리스크도 훨씬 커서다. 소아를 진료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같은 과의 나머지 의료진들이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유다.

A전문의는 “어릴수록 보채고 몸집도 작아서 경험이 없으면 진찰은 물론 채혈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면서 “의료소송 리스크도 성인 환자의 4~5배에 달한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려면 소아 응급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환자 급감,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서울의 또 다른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B 전문의는 “실질적으로 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크게 줄

었다”면서 “전공의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만간 ‘옛날에 소아청소년과가 있었다더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71.2%에서 2021년 38.2%로 거의 반토막 난데 이어 2022년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수년째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중소병원도 수도룩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2년째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소아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증 소아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센터 인력 확충과 적절한 수가 책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소아응급전문의 전담 전문의를 팀당 최소 7명(현재 최소 5명)으로 늘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권역 외상센터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초기 시설·장비 지원과 소아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한기자

## 광주·전남 최고 40mm 단비...가뭄 해소엔 역부족

### 건조특보 모두 해제... “해갈엔 시간 더 걸릴 듯”



광주와 전남 곳곳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일 강수량은 강진 31.9mm, 장흥 26.6mm, 광주 16.3mm, 해남 15.9mm, 영광·고흥 11.9mm, 여수 11mm, 완도·순천 10.7mm, 목포 7.7mm 등으로 잠정 기록됐다.

기상청은 서해안의 비 구름대가 시간당 50~60km씩 속도로 동진하면서 이날 오후 9시까지 광주·전남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밤사이 잠시 그쳤던 비는 오는 14일 오전부터 산발적으로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이번 비는 건조한 날씨 속 지난해 말 이후 역대 최저 강수·강설량으로 계속되는 ‘겨울 가뭄’ 속에 내리는 만큼 단비로 꼽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올 겨울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9.2mm에 불과, 평년 겨울철 강수량

(106.3mm)의 8.65%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완도 등 섬 지역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남·나주 등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잎 마름 현상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 광역 상수도 주요 댐·지방 저수지의 저수율도 감소세가 확인됐다.

이날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순천·광양·여수·장흥·화순·보성·고흥·구례·곡성)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오랜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올 겨울 워낙 강수·강설량이 적었고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졌다. 이번 봄비로 건조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가뭄 해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분간 비가 종종 내릴 것으로 보여 해갈(解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남진기자

서해안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는 1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공원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 무안군, ‘가격 하락’ 조생 양파 60ha 시장격리

### 양파 60ha 시장격리

무안군은 최근 양파 소비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양파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20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와 2022년산 조생양파 시장격리 등 양파 수급대책을 긴급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조생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 16억 4700만원을 투입해 60ha 면적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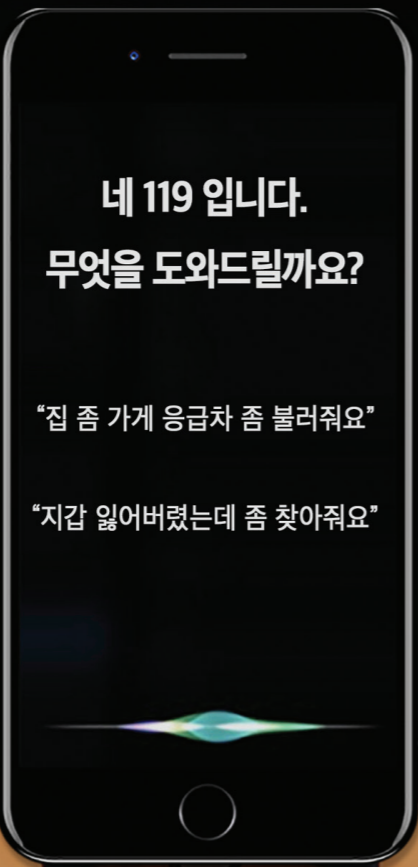
시장격리 대상은 무안군에서 실시한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 조사에 등재된 농가 중 2021년 양파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또는 2022년 경작신고 완료된 필지가 대상이며, 지원 단가는 평당 9060원이다.

2022년산 무안군 양파 재배면적은 2037ha로 조생종 644ha, 만생종 1393ha이며, 이번 산지폐기에서는 2022년산 조생양파 중 극조생 양파를 우선 격리하기로 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